

##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ulticultural youth on learning adaptation: Focusing on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Hyoung-Ha Le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ulticultural youth on learning adaptation and to identify the indirect effects of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this relationship. In order to analyze these relationship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panel data were used for the seventh year of multicultural youth (20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perceived by multicultural youth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learning adaptation. Seco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youth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support. Third,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ulticultural youth on learning adaptation was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s through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as well as direct effe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to improve social support and learning adaptation of multicultural youths.

▶ **Key words:** Multicultural Youth, Self-Esteem,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Adapt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통해 발생하는 간접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7차년도(2017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는 학업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이외에도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및 학업적응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학업적응, 구조방정식 모형

- 
- First Author: Hyoung-Ha Lee, Corresponding Author: Hyoung-Ha Lee
  - \*Hyoung-Ha Lee (hhlee62@kwu.ac.k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20. 03. 30, Revised: 2020. 04. 22, Accepted: 2020. 04. 23.

## I. Introduction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학생은 12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2825명(11.7%)이 증가하였다. 다문화학생 중 고등학생은 2013년 4,858명에서 2018년 10,688명으로 6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1].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다양한 위기를 겪는 동시에 이러한 힘들을 극복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2, 3].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아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부모의 지지적 생활환경의 결핍 등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더해 학교생활 적응상의 어려움과 학업성적 저조,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사회적 차별과 소외 등의 부정적인 사회환경과도 자주 마주쳐야 한다.

따라서 이중문화 배경이 가져올 수 있는 정체성 혼란과 부모의 학업에 대한 낮은 관여, 학교생활 적응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필요하다. 사회 환경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긍정적 도움과 지원을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라고 하고, 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줄여 주어[4, 5], 청소년이 성공적인 성인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6, 7, 8]. 특히,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교사, 또래 친구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9, 10].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11]와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애정과 지지를 나타내도 자녀에게 성취행동을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동의 성취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는 상반된 연구가 있을 뿐이다.

한편,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자아개념이자 스트레스나 위험행동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대처능력이 될 수 있어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3, 14, 15, 16, 17]. 학교적응은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활동에 참여하며 편안하게 느끼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18], 학업적응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으로 학습자가 학교의 수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요

구를 적절히 조절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19, 20].

선행연구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를 떨어뜨리며, 이는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는 중요한 연구문제라고 주장한다. 성취동기는 청소년의 학습동기와 성적,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학교적응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21, 22, 23, 24, 25]. 학교환경이나 친구관계 변화, 대학진학이나 직업진출이나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인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 다문화청소년의 입장에서는 학업적응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자녀와 관련된 연구들은 국제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 이후로 주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급에 재학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이에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는 것에 비해, 고등학생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초기 학업성취 등 인지적 기술습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지만, 다문화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응의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욱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에 따른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문화청소년의 환경자원인 낮은 사회적지지는 위험요인(risk factor)을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라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을 매개로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26]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지지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적지지의 격차 완화방안,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향상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전환기에 놓인 고등학생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Analytical data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데이터 중 2017년

자료(7차년도)[27]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다문화청소년 부모 1,260명, 학생 1,260명(남학생 615명, 여학생 645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 2. Research model

### 2.2.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의 직접효과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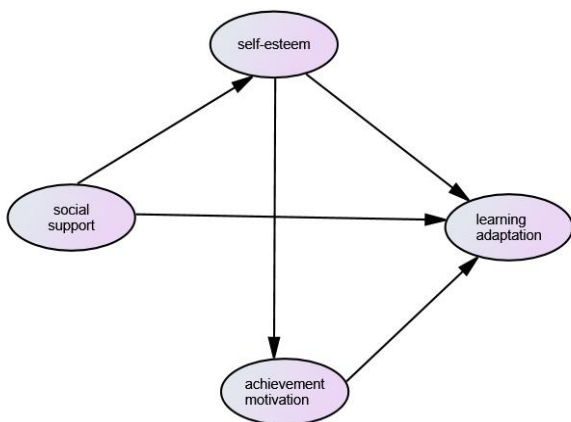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2.2 Research hypothesis

연구가설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2.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4.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5.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적응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6.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7.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이중매개로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Measuring tools

### 2.3.1 Social support

본 연구에서는 MAPS에서 사용한 부모님의 지지,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의 점수를 사회적지지로 사용하였다.

부모님의 지지척도는 김의철, 박영신(1999)[28]의 척도 문항 중 총 9문항으로,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친구 관계는 황여정, 김경근(2006)[29]의 척도 문항 중 총 4문항으로,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는 [29]황여정, 김경근(2006)의 척도 문항 중 총 3문항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의논할 선생님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지지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각 대상(부모님, 친구, 교사)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919이며, 부모님 지지는 .917, 친구 관계는 .914, 교사와의 관계는 .888으로 나타났다.

### 2.3.2 Self esteem

본 연구에서는 MAPS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9문항에 대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30]의 척도 중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alpha$ 는 .742로 나타났다.

### 2.3.3 Achievement motivation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로 MAPS에서 사용한 성취동기 문항에 대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성취동기는 Yu & Yang(1994)[31]의 척도 중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성취동기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취동기의 Cronbach's  $\alpha$ 는 .871로 나타났다.

### 2.3.4 Learning adaptation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응으로 MAPS에서 사용한 학업적응 문항에 대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학업적응은 김정남(2013)[32]의 학교적응척도 중 학업 영역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학업적응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적응의 Cronbach's  $\alpha$ 는 .869로 나타났다.

2.4 Analysis method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22.0을 사용하였고,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업적응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였다. 둘째, 잠재변수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학업적응, 자아존중감, 성취동기에 대해서는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모수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절대적합도는  $\chi^2$ 의 값뿐만 아니라 CFI, TLI, GFI, RMSEA, SRMR 등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ex)를 함께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서는 결측치가 없어야 하므로 예측정확성이 양호한 결측치 대체(imputation)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Gold & Bentler, 2000; 정은희 외, 201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회귀대체법(Regression imputation)에 의한 결측치 처리를 하였다[33].

III. Results of the study

1.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1,260명중 남학생 615명(48.8%), 여학생 645명(51.2%)이었다. 연구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급은 중학교재학 4명(0.3%), 고등학교재학 1,256명(99.7%)이었으며, 거주지역은 서울시 121명(9.9%), 경인(경기도+인천) 318명(25.9%), 충청 및 강원권 246명(20.0%), 경상권 279명(22.7%), 전라 및 제주권 263명(21.4%)이었다. 가구형편은 어렵다(어려운 편이다+아주 어렵다) 652명(36.4%), 보통이다 545명(44.4%), 잘 산다(잘 사는 편이다+아주 잘 산다) 30명(2.5%)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중학교졸업 이하 129명(10.5%), 고등학교졸업 583명(47.6%), 대학교졸업(재학) 513명(41.9%)이었고, 아버지 학력은 중학교졸업 이하 363명(31.1%), 고등학교졸업 608명(51.7%), 대학교졸업(재학) 201명(17.1%)로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부모출신으로 아버지 40명(3.2%), 어머니 1,213명(96.3%), 두 분 모 외국인인 한국인 7명(0.6%)으로 어머니의 대부분이 외국인출신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신국가로 한국 39명(3.2%), 중국 301명(24.5%), 일본 428명(34.9%), 필리핀 322명(26.2%), 동남아 77명(6.3%), 기타 60명(4.9%)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lassification		N(%)
gender (n=1,260)	Male student	615(48.8)
	Female student	645(51.2)
school class (n=1,260)	Middle school	4(0.3)
	High school	1,256(99.7)
residence (n=1,227)	Seoul	121(9.9)
	Gyeongin (Gyeonggi-do + Incheon)	318(25.9)
	Chungcheong and Gangwon-do	246(20.0)
	Gyeongsang-do	279(22.7)
	Jeolla and Jeju	263(21.4)
home economy (n=1,227)	very difficult	184(15.0)
	similar to difficult	468(38.1)
	average	545(44.4)
	similar to well	28(2.3)
	very well	2(0.2)
mother education (n=1,225)	middle School or below graduation	129(10.5)
	high school graduation	583(47.6)
	university graduation (attending)	513(41.9)
father education (n=1,175)	middle School or below graduation	366(31.1)
	high school graduation	608(51.7)
	university graduation (attending)	201(17.1)
foreign parents (n=1,260)	father	40(3.2)
	mother	1,213(96.3)
	both are foreigners	5(0.4)
	both are korean	2(0.2)
mother nation (n=1,227)	Korea	39(3.2)
	China	301(24.5)
	=Japan	428(34.9)
	Philippines	322(26.2)
	Southeast Asia	77(6.3)
	Other	60(4.9)

2. Checking data and Verify the nomality of Measuring variables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업적응 등 4개의 잠재변수와 2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다.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전 신뢰도 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9항목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9번문항(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R))를 삭제하여 8문항을 측정변수로 활용한 결과 Cronbach's  $\alpha$ 가 .742에서 .866로 상승하였다. 구조방정식의 정규분포성 가정 충족 여부는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이면 추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3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왜도는 -.126에서 -.949, 첨도는 -.013에서 0.711의 범위에 있어 정규분포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측정변수들 간에 상관계수는 0.20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3. Measuring model and Structure model analysis

#### 3.1 Measuring model analysis

본 연구의 잠재변인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업적응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측정변수들이 요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Table 2. 참조). 각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경로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측정지표와 성취동기의 측정지표 각각의 8번 문항의 추정치(.486, .436)가 0.5이하 수준이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라고 판단해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980.227(df=224, p=.000)$ , CFI=.933, TLI=.924, GFI=.948, RMSEA=.045, SRMR=.024로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괜찮은 수준의 적합도로 분석되었다[33].

다음으로 각각의 잠재변수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0.7 이상으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지표들이 구성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 AVE(평균분산 추출량) 값은 0.5 이상으로 모형의 개념구성들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 Structure model analysis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1,041.352(df=225, p=.000)$ , CFI=.928, TLI=.919, GFI=.945, RMSEA=.026, SRMR=.026로 전체적으로 적합도가 양호한 모델로 판명되었다[35, 36, 37].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적지지, 성취동기 변수는 학업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 $\beta = .752$ )는 자아존중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

Table 2. Measurement Model Analysis Results

Path	Estimate		S.E.	C.R.	AVE	Construct Reliability	
	B	<i>B</i>					
social support	→friends relationship	1.000	.605			.870	.930
	→teacher relation	1.052	.623	.058	18.109***		
	→parent support	.923	.593	.053	17.545***		
self-esteem	→self-esteem8	1.000	.486			.862	.977
	→self-esteem7	1.109	.689	.063	17.640***		
	→self-esteem6	1.068	.700	.060	17.773***		
	→self-esteem5	.992	.508	.066	14.956***		
	→self-esteem4	1.037	.607	.063	16.671***		
	→self-esteem3	.835	.440	.061	13.620***		
	→self-esteem2	1.080	.666	.062	17.365***		
	→self-esteem1	1.056	.693	.060	17.693***		
achievement motivation	→achievement8	1.000	.436			.804	.966
	→achievement7	1.516	.652	.098	15.482***		
	→achievement6	1.315	.589	.089	14.819***		
	→achievement5	1.492	.652	.096	15.481***		
	→achievement4	1.536	.574	.105	14.644***		
	→achievement3	1.456	.670	.093	15.649***		
	→achievement2	1.472	.647	.095	15.434***		
→achievement1	1.359	.582	.092	14.746***			
learning adaptation	→learning-ada4	1.000	.744			.926	.974
	→learning-ada3	.959	.748	.036	26.528***		
	→learning-ada2	.902	.671	.037	24.221***		
	→learning-ada1	.915	.634	.040	22.999***		

$\chi^2=980.227(df=224, p=.000)$ , CFI=.933, TLI=.924, GFI=.948, RMSEA=.045, SRMR=.024

\*\*\* $p < .001$

게 상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 $\beta=.582$ )은 성취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 또한 지지되었었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 $\beta=.524$ )는 학업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은 유의미하게 상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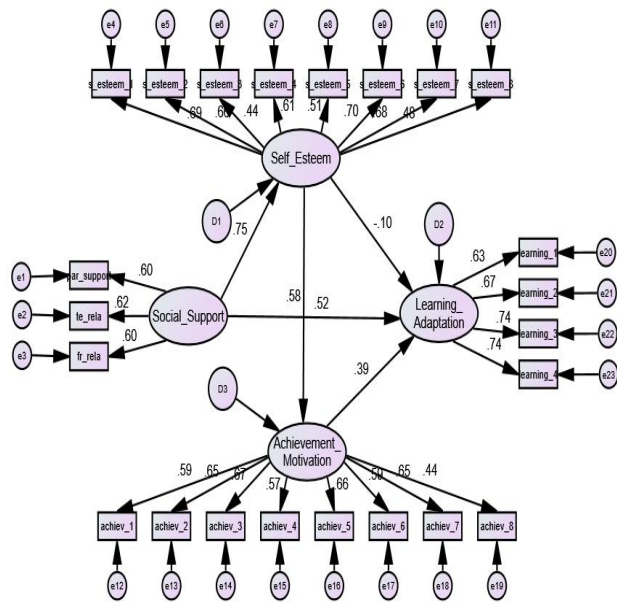


Fig. 2. Structure Model Analysis Results

Table 3. Path Coefficients of Structural Model

Path	Estimate		S.E.	C.R.	p
	B	<i>B</i>			
social support → self-esteem	.934	.752	.058	16.23	.000***
self-esteem → achievement motivation	.283	.582	.021	13.253	.000***
achievement motivation → learning adaptation	.911	.391	.097	9.344	.000***
self-esteem → learning adaptation	-.110	-.097	.071	-1.549	.121
social support → learning adaptation	.738	.524	.095	7.754	.000***

$\chi^2=1,041.352(df=225, p=.000)$ , CFI=.928, TLI=.919, GFI=.945, RMSEA=.026, SRMR=.026

\*\*\*p<.001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 $\beta=.391$ )는 학업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4>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beta=-.097, p<.121$ )은 학업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5>는 기각되었다.

3.3. Mediating effect analysis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BC의 신뢰도 구간은 95%로 설정하여 간접효과의 유의한 경로는 Table 4.와 같다.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 $\beta=.228, p=.003$ )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어 <연구가설 6>은 지지되었다. 즉,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학업적응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학업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 $\beta=.098, p=.020$ )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어 <연구가설 7>도 지지되었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Table 4. Intermediate effect analysis through bootstrapping

Path	Indirect effect	S.E.	p	95% confidence interval* (BC: Bias-corrected)
social support → self-esteem → learning adaptation	.228	.022	.003	.193~.265
social support → self-esteem → achievement motivation → learning adaptation	.098	.040	.020	.025~.165

주: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Estimate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017년 자료(7차년도)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영향만큼이나 의미있는 타자로부터 받게되는 다차원적인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주요 분석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는 학업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회적지지의 영향이 가장 큰 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0]에서 제시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습활동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과 그 맥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교사-친구 관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13, 14, 15, 16, 17]에서도 거듭 입증되었다.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며,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38]. 또한 성취동기는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도 선행연구[24, 25]와 일치하고 있다. 즉, 청소년시기에 자아존중감이 잘 형성되면 자신감, 성취동기와 용기가 높아지고, 삶의 변화에 있어서 적절한 조절도 가능하다는 선행연구[25, 39]와 유사한 맥락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지지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감이자, 위험행동을 방어해 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선행연구[14, 15]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이외에도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학업적응이 더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이는 다시 성취동기를 높이고 이렇게 고양된 성취동기는 학업적응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 중 중학교졸업 이하가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지 강화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문화적, 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역할 프로그램 제공, 아버지와 함께 하는 부모 역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지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가 지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방학 중 교사연수 과정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적 특징을 반영한 교육적 지지방법과 개별화된 상담지도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이 함께 하는 협력적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포용 기회를 넓혀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내재적 역량인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다문화가정이란 이중문화 배경을 강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이들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기반한 강점관점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강화 접근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서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기의 경우 이중문화 배경을 숨기는 비합리적 생각으로 자기비하에 빠지게 되면 성취동기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소속감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도 필요하다.

넷째,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사회적지지의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높이는 개별화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변화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학업적응과 이어질 수 있는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된 시점의 횡단적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발달적 과정을 종단적으로 연구와 사례연구 방법 등의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부모의 지지, 교사관계, 친구관계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

적지지의 세 가지 원천별 학업적응에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지지 → 자아존중감 → 성취동기 → 학업적응 사이의 간접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효과 크기 자체는 미미하여 향후 반복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을 투입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정해 본다면 다문화가정이 처한 상황별 지원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9). 2019 youth statistics.
- [2] Y. K. Lee, J. Y. YU & H. B. Bang. (2012). Influence of Parents' Positive Career Involvement upon Adolesc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entering on Comparison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General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2), 129-154. UCI : G704-000387.2012.19.2.008
- [3] I. S. Jang & H. J. Kim. (2014). Academic Performance and Career Support System of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Minjok Yeonku. 60, 50-67. UCI : 1410-ECN-0102-2015-300-002314036
- [4] S. Cobb.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DOI: 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5] S. Cohen & T. A.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6] B. C. Feeney & N. L. Collins (2015). A new look at social support: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riving through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9 (2), 113-147. DOI: 10.1177/1088868314544222
- [7] S. Y. Rueger, C. K. Malecki, Y. Pyun, C. Aycock & S. Coyle. (2016).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42 (10), 1017-1067. DOI: 10.1080/02673843.2019.1568887
- [8] Y. J. Shin & K. S. Lee.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Relations to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5(3), 95-120. DOI: 10.26857/JLLS.2019.8.15.3.95
- [9] Y. M. Ko & J. Y. Lee. (2009). The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7(1), 49-63. DOI : 10.35151/kyci.2009.17.1.004
- [10] Y. J. Chang. (2019). Multicultural Adolescents' Profiles of Social Support and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Global Studies Education. 11(4),26-51. DOI : 10.19037/agse.11.4.02
- [11] W. K. Lee & H. S. Doh. (2005). Correlates of Adolescent Achievement Motivation: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Expectations and Emotional Support, and Adolescent Self-Esteem.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6(3), 43-59.
- [12] H. K. Koo. (2008). The Effects of Maternal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al Support on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13] S. A. Nam & J. S. Biak. (2011).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of Child and Early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9(1), 3-12. UCI : G704-001838.2011.9.1.004
- [14] J. A. Choi. (2011). Longitudinal Associations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Support, Self-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27(3), 189-212. UCI : G704-001638.2011.27.3.001
- [15] J. Y. Yoon & E. J. Hur. (2017).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stud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6), 775-798. DOI : 10.24159/joec.2017.23.6.775
- [16] S. C. Han. (2012).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4), 239-258. UCI : G704-002141.2012.9.4.010
- [17] H. L. Chang & R. H. Lee. (2019).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7, 189-218. DOI : 10.20993/jSSW.47.7
- [18] S. H. Birch & G. W. Ladd.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80. DOI : 10.3886/ICPSR06389.v3
- [19] Y. K. Kang. (2015).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ademic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 Focused on School Life Factor.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20] M. S. Kim. (2019). A Stud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hanges in Academic Adaptation and Determinant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8(4), 251-271. DOI : 10.30974/kaice.2019.8.4.271
- [21] J. Y. Hong. ( ). The effects of voluntary service activit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 [22] J. M. Hyun, H. S. Shin & S. J. Lee. (2014). The Effect of Family

- Environment Variables,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on Achievement Motivation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3), 1-15. **UCI : G704-000502.2014.26.3.003**
- [23] J. A. Park. (1991).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Training on Elementary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University.
- [24] H. J. Jang & H. M. Yoon. (2010). Mediation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School Adaptation among Rura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3, 7-36. **UCI : G704-000946.2010..33.004**
- [25] E. Y. Yun (2019). A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Multiculture & Peace*. 13(2), 1-22. **DOI : 10.22446/mnpisk.2019.13.2.001**
- [26] Y. H. Kim. (201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ulticultural Youth on Career Determinati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2017 Multicultural Youth Panel Conference. 17-S38, 403-418.
- [27]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7). 7th Multicultural Youth Panel Data.
- [28] U. C. Kim & Y. S. Park. (1999).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attern of Korean adolescents :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friends, family, and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1), 99-142. **UCI : I410-ECN-0102-2009-370-004987501**
- [29] Y. J. Hwang & K. K. Kim. (2006). Determinants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general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2), 181-203. **UCI : G704-001276.2006.16.3.016**
- [30]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DOI : 10.1126/science.148.3671.804**
- [31] A. B. Yu & K. S. Yang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pp.239-250). London: Sage Publications.
- [32] J. N. Kim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Short Form.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3), 497-517. **UCI : G704-000523.2013.25.3.003**
- [33] J. P. YU (2017).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Publishing.
- [34] H. J. Lee & M. Y. Um. (2017). The Relationship among Potential Job-related Risks, Emotional Dissonance, and Turnover Intention of Caregivers at Long-term Care Facilities :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8(4), 187-219. **DOI : 10.16999/kasws.2017.48.4.187**
- [35] S. H. Hong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UCI: I410-ECN-0102-2009-180-000930215**
- [36] R. B. Kline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37] Y. E. Kim & M. Y. Um (2018). The effect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student's ego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9(4), 5~30. **DOI : 10.16999/kasws.2018.49.4.5**
- [38] J. W. Jung. (2014). Th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1), 101-118. **UCI : G704-000502.2014.26.1.003**
- [39] S. H. Park & E. Y. Cho. (2016).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elf-esteem, Learn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Focusing on Household Income Differenc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5, 53-83. **UCI : G704-SER000009000.2016.35..004**

## Authors



Hyoung-Ha Lee received the M.S. and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from Dongshin University, Korea, in 2000, and 2004,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in 2004. He is interested in Poverty problems, Multicultural migration and Baby parent generation.